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5. 31.(수) 06:00 < 5.31.(수) 석간 > 배포 2023. 5. 30.(화)

한-일 철강산업 협력의 물꼬 다시 트다

- 글로벌 탄소규제 공동대응,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 등 강화 논의

한국과 일본 간 철강산업 협력을 위한 과장급 정례 협의체인 한(韓)-일(日) 민관 철강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되었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에 따르면 5월 31일(수) 오전 9시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제20회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(Korea-Japan Steel Dialogue)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공동으로 개최되었다. '01년부터 시작한 해당 협의회는 '18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나, 한일 정상회담(3.16 도쿄, 5.7 서울) 등 최근 한일관계 회복 흐름과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개최가 추진되었다.

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과 마츠노 다이스케 일본 경산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하여 한국철강협회, 일본철강연맹 및 각국 주요 철강기업 등이 참석해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,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,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등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. 특히 유럽연합(EU)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탄소규제 대응 협력, 공동 기술세미나를 통한 저탄소 철강 기술 교류 추진 등을 협의하였다.

참가자들은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, 동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하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	오충종 (044-203-4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다은 (044-203-46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제20회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요**

□ **일시/장소** : '23. 5. 30.(화) ~ 31.(수) / **일본 도쿄** (경산성, 뉴오타니 호텔)

□ **목적** : 글로벌 및 양국 **철강 통상현안** 논의, **저탄소 철강 기술교류 협의**

□ **참석자** : **양국 철강산업 담당 부서 및 철강협회, 주요기업** 등 약 40명

○ **(한국)** (정부)**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** 등 5명
(민간)철강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, 세아재팬 임원급 등 13명

○ **(일본)** (정부)**마츠노 다이스케 경산성 금속과장** 등
(민간)철강연맹, 스테인리스협회, 주요 철강사 등 약 20명

< 한-일 철강협의회 주요일정 및 아젠다 >

구분	주요 내용	
정부 간 회의	일시/장소	5.30.(화) 16:00~17:30, 도쿄 경제산업성
	참석자	양국 정부 대표
	아젠다	· 글로벌 탄소규제(CBAM, GSSA 등) 공동대응 협의 · 한일 간 철강무역 이슈 협의
민관 회의	일시/장소	5.31.(수) 09:00~13:00, 도쿄 뉴오타니 호텔 (5층 Aries룸)
	참석자	양국 정부 및 민간 대표
	아젠다	· 양국 철강산업 정책 및 철강시장 동향 공유 · 글로벌 및 양국 간 통상이슈 점검 및 협력 논의 · 저탄소 철강 기술 교류·협력 방안 논의